

#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계획 항목의 도출에 관한 연구

이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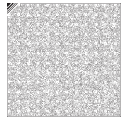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Corresponding Author : headoz@nuch.ac.kr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명승의 종합정비계획 요소를 발굴하고 필요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명승의 지정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립된 35건의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 분야'와 '계획 분야'에 사용된 항목을 검토하여 전국 60개 지자체의 명승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국 60개 지자체로부터 회수된 45개 설문지에 대한 실무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응답에 대한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가 조사 분야에서 0.968, 계획 분야에서 0.970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설문조사결과, 종합정비계획의 6개 조사 분야에 대한 항목의 필요도에서도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역사환경'과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일반환경'과 '이용자'부문에서도 주요 문화재 및 유적의 분포(4.04),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4.15) 등 특정 항목에 대한 필요성도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획 분야에 대한 항목의 필요성에서도 대체적으로 필요(4.0)의 수준으로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역사환경'의 지정가치 및 위상강화(4.26),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정비계획(4.25), 그리고 '인문환경'의 명승 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수리(4.28), '경관'부문의 경관탐방로계획(4.28)에 대한 항목들은 필요도가 높았다. 이처럼 명승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조사와 계획 항목들은 새로 마련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과 함께 종합적 차원에서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년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명주 청학동 소금강 (명승 제1호)'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2001년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명승의 지정 건수는 점차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에 시행된 「사적 및 명승 문화재 지정종별 재분류 조사 연구」를 통해 기존에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었던 대상이 '사적'과 '명승'으로 구분되면서 총 8개소가 명승에 편입되었다. 현재(2018년 8월 기준)는 자연명승 52개소, 역사문화명승 59개소로 총 111개가 지정되어 명승의 관리 규모가 커진 상황이다.<sup>1</sup> 문화재로 지정된 명승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식생, 동물, 지형, 지질, 수환경, 경관, 소방 안전관리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명승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은 명승과 함께 기념물에 속하는 사적(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규 제77호, 제정 2009))에만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5월에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훈령 제457호, 제정 2018)」이 뒤늦게 마련되었다.

지침의 제정 이전까지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승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6건(전체 약 41.4%)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처럼 체계적이지 않지만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현저히 증가한 명승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일관성이 유지된 사업 전개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명승의 특성이 반영된 체계적인 조사와 계획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명승의 지정이 확대

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대상으로 정비에 사용된 조사와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명승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이 높은 조사와 계획의 항목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명승에 대한 연구는 명승의 지정을 위한 가치 발굴에 관한 연구(이창훈과 이원호, 2017; 강영애 외, 2016; 노재현과 이현우, 2016; 이영이 외, 2012; 최지영 외, 2012)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명승에 대한 과거의 인식과 체험(정산야, 2018; 신준과 류제현, 2017; 조영남, 2016)이나 명승과 관련된 회화(조규희, 2012; 박정애, 2013) 또는 명승의 개념 정립(김진영, 2016; 김창규, 2013)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명승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사나 정비 계획에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나마 명승의 지정을 위한 평가(박근엽, 2008; 양주미, 2008; 이진희, 2006; 신승진, 2004)나 명승의 가치성 또는 조망 분석(하태일, 2016; 하태일과 김충식, 2014; 이원호와 김재용, 2013)에 관한 연구에서 경관적 가치의 항목이 부분적으로 다루어 졌다. 명승의 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문화재 지정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설정을 위한 연구(김재용과 김승민, 2014; 이영배와 류제현, 2013), 식생에 관한 연구(오해성과 이원호, 2013; 이종범, 2013)에서도 대부분 현황을 다루는 정도에 그쳤다. 이 밖에도 명승에 대한 필지변화(이원호 외, 2014; 이원호와 이세미, 2013)나 수체계(이원호 외, 2012)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개별 대상지에 국한되어 명승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명승의 효율적 조사나 계획 수립을 위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

1 지역별로 명승은 강원도에 26개소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남 18개소, 경북 15개소, 경남 12개, 충북 10개소, 제주 9개소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외에 전북, 경기, 서울, 충남, 인천, 부산, 광주 등에 21개소의 명승이 있다.

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검토된 가치 평가 항목이나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사용된 항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명승의 조사와 계획을 위한 항목의 도출이 요구된다.

###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해 명승의 지정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립된 명승 종합정비계획의 현황을 조사하였다(그림 1). 조사결과,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총 46건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sup> 이 중에

서 완료된 종합정비계획의 자료가 분실되었거나 현재 사업이 중지 또는 진행 중인 1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5건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가 수집되었다.<sup>3</sup> 종합정비계획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보고서는 2013년에 9건, 2016년에 8건, 2014년에 6건, 2009년에 3건 순으로 수립 빈도가 높았으며 2015년, 2011년, 2010년, 2008년에 각각 2건, 2017년에 1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그림 2). 지역별로는 단양군 4건, 서귀포시와 영월군이 각각 3건이며 강릉, 담양, 양양, 포천이 각각 2건, 거창군을 포함한 17개 시군에서 각각 1건이 수립되어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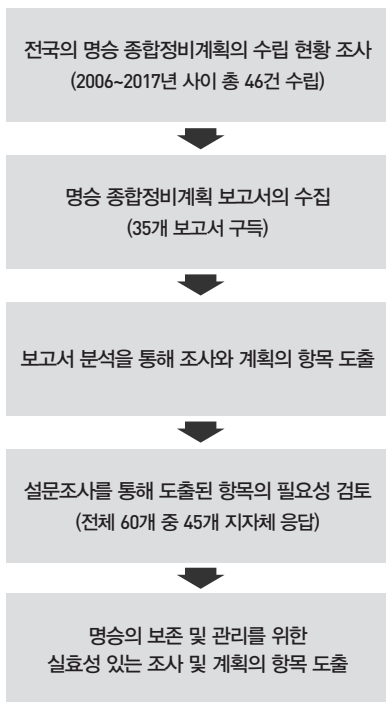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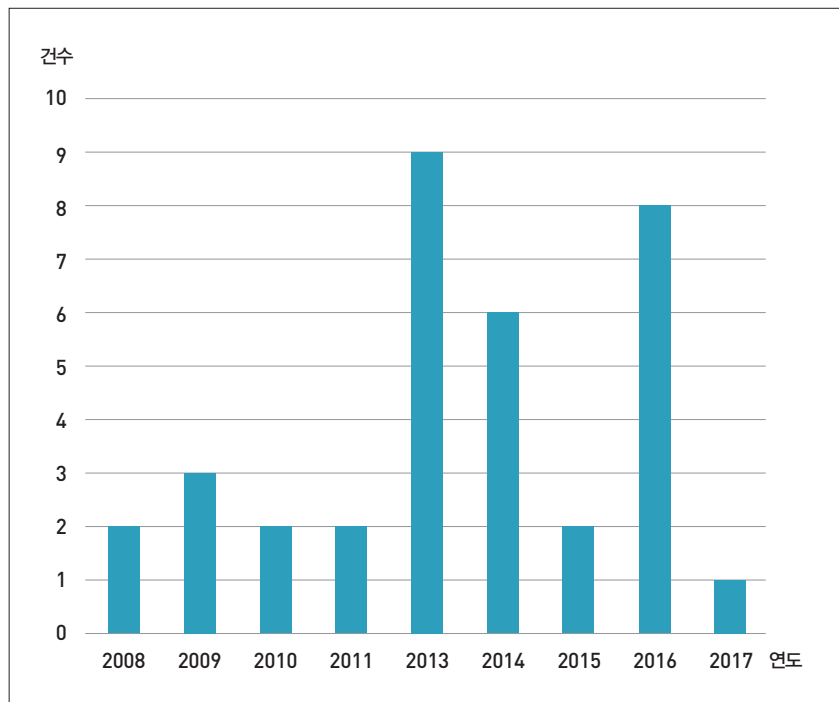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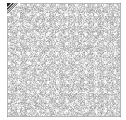


그림 2. 수집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의 연도별 분포(2008~2017)

2 1회 이상 명승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으로는 명승 제33호 광한루원(2009년과 2017년)과 명승 제37호 동해 무릉계곡(2009년과 2016년)이 있다.  
 3 본 연구에서 제외된 11건의 종합정비계획 중 자료가 유실되었거나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은 곳은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2006년),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2009년), 명승 제25호 순천 초연정 원림(2009년), 명승 제37호 동해 무릉계곡(2009년), 명승 제70호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2011년), 명승 제88호 거창 용암정 일원(2013년) 등 6건이며, 종합정비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중지된 곳은 명승 제109호 남양주 윤길사 수증사 일원(2015년),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2016년),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2016년),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2016년), 명승 제33호 광한루원(2017년) 등 5건이다.



수집된 보고서는 완료된 종합정비계획의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조사와 계획에 사용된 항목과 내용이 검토되었다. 이후 조사와 계획 항목의 출현 빈도 파악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 주요 항목들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조사와 계획 항목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명승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60개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 성향, 인식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법인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가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응답자가 설문하는 항목에 대한 동의, 필요성, 만족도 등을 1~5점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필요도에 대한 항목은 비례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서술에 있어서는 평균값(mean)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8.0를 사용하여 빈도 및 평균값이 산출되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명승의 정비를 위해 요구되는 조사 및 계획 항목이 도출되었다.

## II. 연구의 결과

### 1. 명승 정비에 사용된 조사 및 계획 항목의 분석

수집된 35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의 기본적인 편제는 '개요', '현황조사', '기본구상', '정비계획', '사업계획', '부록'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현황조사'에는 역사성이나 원형 경관에 대한 학술 조사, 관련 법규 및 계획의 검토, 토지 이용 및 지적 사항, 건축물·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 교통·접근성, 지형 및 수계, 자연경관 및 인문경관 자원, 행사 및 프로그램, 수목 생육 현황, 수목 건전도 평가, 토양 성분 및 구조, 병해충 조사, 지표조사와 같은 다양한 현지 여건 조사에 필요한 항목이 다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비계획'은 보고서마다 매우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었는데 유적 정비, 주변 지역 정비, 활용 계획으로 분류하거나 역사문화 부문, 산림생태 부문, 관광 부문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같이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정비계획'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계획가의 의도나 명승의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성되기 때문으

로 보인다. 그러나 명승의 정비를 위한 조사와 분석이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것에 비해 조사와 계획 항목의 불일치로 인해서 각종 분석 결과에 대한 처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불일치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조사와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은 '일반환경', '역사환경',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이용자' 6개였다. 각 항목은 다음의 다양한 세부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일반환경'은 주요 문화재 및 유적, 주변 관광자원, 축제 및 행사 등 명승과 연계하기 위한 주변 환경에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둘째, '역사환경'에는 명승의 지정 가치와 위상, 관련 유적·인물·사건과 함께 브랜드 및 콘텐츠 발굴, 문화재 지정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셋째, '자연환경'은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 수문, 수계, 임상, 동식물의 생육 환경 등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넷째, '인문환경'에는 토지이용, 지목, 소유, 교통, 역사적 건축물, 일반 건축물, 조경시설물, 방제시설, 지하시설물 등이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관' 부문에는 경관자원의 위치, 규모, 조망형태 및 구조, 전망시설 등에 관한 항목들이 조사되었다. '이용자'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방문자의 이용 특성이나 만족도,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명승 종합정비계획은 명승의 지정 기준, 유형, 운영 방안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관·조경, 민속·지리, 식물·생태, 고건축, 고고학, 지질, 토목, 관광 등 조사와 계획의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이로 인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명승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어, 제주 서귀포 산방산(명승 제77호)이나 쇠소깍(명승 제78호),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명승 제94호) 등은 지질적으로 뛰어난 가치가 인정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명승의 정비계획에서 다루지 않은 지질 조사가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3A). 반면, 단양의 도담상봉(명승 제44호)·석문(명승 제45호)·구담봉(명승 제46

호)·사인암(명승 제47호)이나 양양 하조대(명승 제68호) 등은 명승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대중적인 국민 관광지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에서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심화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그림 3B).

한편, 담양 명옥헌 원림(명승 제58호)과 담양 식영정 일원(명승 제57호)의 종합정비계획에서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명승의 경관을 형성하는 전통 건축양식을 지닌 건축물(이하 ‘역사적 건축물’)이 두드러지게 다루어진 사례도 있다(그림 3C). 역사적 건축물은 지속적인 변형이나 훼손으로 인해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전통 양식을 지니지만 비교적 근래에 조성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가나 시·도의 지정을 통한 관리가 사실상 희박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역사적 건축물이 명승과 관련된 유적·인물·사건 등에 관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거나 역사적 경관의 재현과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건축물은 장기적 관점에서 명승의 일부로서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명승의 종합정비계획 시 다루어져야 할 항목들은 명승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명승의 유형 분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사와 계획 항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이는 명승의 유형 분류에 대한 체계적인 틀이 안착되었을 때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이 시도될 수 있는 항목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 2.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와 계획의 항목 도출

수집된 35건의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는 『명승 보존 관리 방안(지정구역 기준마련)연구(문화재청, 2016)』에 따라 산악형, 계곡형, 하천호수형, 도서해안형, 정원원림형, 옛길형, 산업형 7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조사와 계획에 사용된 항목들의 출현 빈도가 산정되었다. 6개 조사 분야에서 ‘일반환경’ 4개, ‘역사환경’ 4개, ‘자연환경’ 5개, ‘인문환경’ 8개, ‘경관’ 3개, ‘이용자’ 3개 등 총 27개 항목이 출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1). ‘일반환경’에서는 기온, 강수량, 습도 등 기상, 주요 문화재 및 유적의 분포, 주요 관광자원,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조사가 주로 수행되었다. 특히, 산악과 하천호수형에서는 모든 항목이 5회 이상의 출현 빈도를 보여 ‘일반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사환경’ 분야에서는 명승의 지정가치 및 위상, 관련 유적·인물·사건,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수리·보수 연혁이 공통적으로 조사되는 항목이었다. 이 중에서도 관련 유적·인물·사건과 문화재 지정구역에 관한 항목은 산악, 하천호수, 정원원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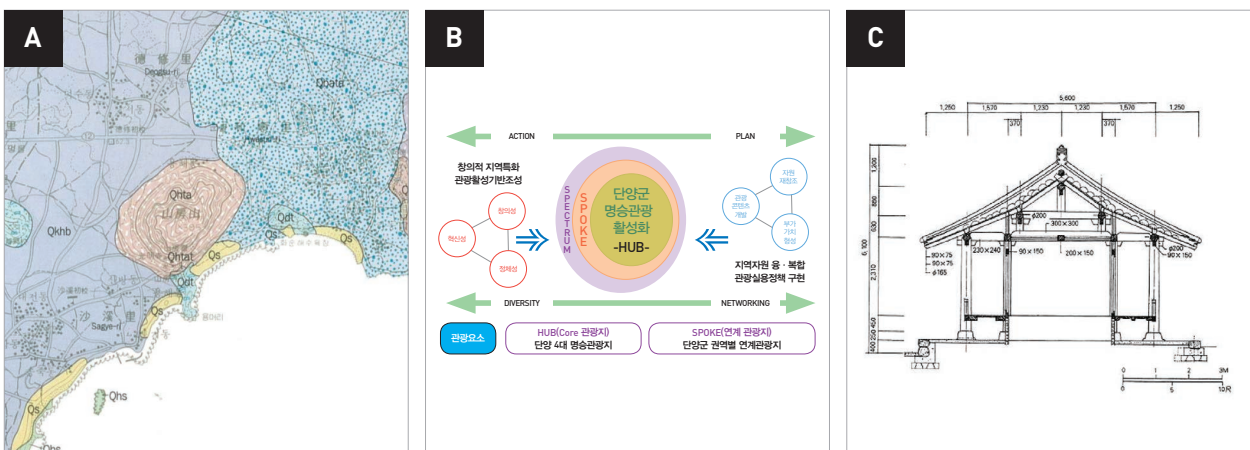


그림 3. 명승의 특성이 반영된 조사 및 계획 항목의 작성 사례. (A) 산방산 주변의 지질도(서귀포시, 2013), (B) 명승 주변 자원 연계프로그램 코스개발(단양군, 2016), (C) 명옥헌의 중단면도(담양군, 2014)



에서 4회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명승의 지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산악과 하천호수형과 같이 지정구역이 넓게 설정되는 자연명승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연환경'에서는 지질, 표고, 경사 등 지형과 수계, 서식 동물의 정보와 수목의 생육환경 등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도 지형과 식생에 대한 조사 항목은 도서해안과 산업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명승의 지정 구역 내에 위치한 주요 수목은 그 중요도에 비해 세부 항목의 빈도가 낮게 나타

났다. 가장 많은 세부 항목이 포함된 분야는 '인문환경'으로 정원원림형에서만 역사적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의 관리 항목이 5회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거의 모든 명승의 유형에서 방재시설이나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관'과 '이용자'에 대한 세부 항목은 각각 3개로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었다. 특히, '경관'은 명승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항목이지만 산악, 하천호수, 정원원림형을 중심으로 주요 경관자원의 조사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1. 조사 분야의 항목별 출현빈도

분야	항목	명승 유형						
		산악	계곡	하천호수	도서해안	정원원림	옛길	산업
일반 환경 (4)	기상(기온, 강수량, 습도 등)	5 이상	2	5 이상	2	5 이상	1	1
	주요 문화재 및 유적의 분포	5 이상	2	5 이상	3	5 이상	4	3
	주요 관광자원	5 이상	2	5 이상	3	4	4	2
	축제 및 행사	5 이상	2	5 이상	2	2	4	2
역사 환경 (4)	명승의 지정가치 및 위상	0	2	0	0	3	4	1
	관련 유적, 인물, 사건 등	5 이상	2	4	1	5 이상	3	1
	문화재 지정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5 이상	2	5 이상	3	5 이상	3	2
	명승의 수리 및 보수 연혁	1	1	3	1	4	0	0
자연 환경 (5)	지형, 지질, 표고, 경사, 향	5 이상	3	5 이상	2	5 이상	3	1
	수계, 수량, 수질	4	2	5 이상	1	4	1	1
	동물상	3	3	3	1	2	2	0
	임상 및 식생	5 이상	3	5 이상	2	5 이상	3	2
	주요 수목의 생육환경, 연혁, 관리	2	1	1	0	2	0	0
인문 환경 (8)	상위계획, 관련 법규, 제도	2	3	5 이상	3	5 이상	4	1
	토지이용, 지목, 소유자	5 이상	2	5 이상	3	5 이상	2	3
	교통 및 동선	5 이상	3	5 이상	3	5 이상	2	2
	역사적 건축물의 관리 현황	1	2	1	1	5 이상	1	2
	일반 건축물의 관리현황	1	2	2	1	5 이상	1	2
	휴게, 편의, 조명 시설 등 조경시설물	3	2	4	2	4	3	1
	CCTV, 소화전 등 방재시설	1	1	1	0	1	0	0
	정화조, 배수로 등 지하시설물	0	1	0	0	0	0	0
경관 (3)	주요 경관자원의 위치	5 이상	1	4	2	4	2	2
	주요 조망점(시점)의 위치	3	0	1	1	2	1	1
	조망형태 및 경관구조	0	0	0	0	1	0	0
이용자 (3)	지역주민,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2	1	3	1	0	3	0
	방문객 특성(방문시기, 이용추이 등)	2	1	1	0	0	0	0
	방문객의 인지도, 만족도 등 설문조사	2	1	3	1	0	0	0

다음으로 계획 분야에서는 ‘일반환경’ 3개, ‘역사환경’ 3개, ‘자연환경’ 5개, ‘인문환경’ 7개, ‘경관’ 3개, ‘이용자’ 2개 등 총 6개 분야의 23개 항목이 확인되었다(표 2). 조사 분야의 항목들과 비교할 때 ‘일반환경’, ‘역사환경’, ‘이용자’ 3개 분야에서 각각 1개 항목이 줄어들었다. 이는 기상이나 명승과 관련된 유적·인물·사건 등과 같이 현황조사의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사와 차별화된 계획 항목들은 ‘자연환경’, ‘경관’, ‘이용자’ 분야에서 나타났다. 특히, ‘자연환경’에서는 대상지의 정비를 위한 지형 정지 및 부지 조성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었고 식생 및 수목에 관련된 항목은 생물환경 정비를 위한 토양환경이 포함되면서 세분화되었다. 조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던 주요 식생의 이식, 보식, 제거 등에 관한 항목은 정원원림형의 정비계획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 이밖에도 정원원림형은 ‘인문환경’의 접근성, 역사적·일반 건축물, 조경시설물의 정비 항목이 5회 이상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며 다른 유형과 차별화되었다. 한편, ‘경관’ 분야에서는 옛길형과 산업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경관 탐방로에 대한 계획 항목이 3회 이상 나타나며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산악형, 하천호수형, 옛길형은 지리적 입지의 특성상 주변에 수려한 경관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망대, 전망데크, 포토존의 정비에 관련된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35건의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서 사용된 조사 항목 27개와 계획 항목 23개를 설문조사의 항목으로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협조를 통해 명승을 관리하고 있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2. 계획 분야의 항목별 출현빈도

분야	항목	명승 유형						
		산악	계곡	하천호수	도서해안	정원원림	옛길	산업
일반 환경 (3)	주요 문화재 및 유적과의 연계	4	2	3	0	4	3	1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	1	2	5 이상	1	3	3	0
	축제 및 행사와의 연계	1	1	4	1	1	1	0
역사 환경 (3)	지정가치 및 위상의 강화방안	1	1	2	0	0	0	1
	브랜드 및 콘텐츠 발굴	1	2	1	1	2	2	0
	문화재 지정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정비	2	3	2	2	4	0	1
자연 환경 (5)	지형 정지 및 부지 조성	1	2	1	1	0	0	0
	수문시설 정비(연못, 호안, 배수로 등)	2	1	3	1	4	1	1
	임상관리(숙아베기, 후계림 조성 등)	0	0	1	1	1	0	1
	식물생육환경 정비(토양환경)	1	0	1	0	0	1	0
	주요 식생 정비(이식, 보식, 제거 등)	2	2	3	0	5 이상	1	2
인문 환경 (7)	토지이용(지목, 소유 등)	0	1	0	2	4	1	2
	교통 및 동선(진입로, 차량, 보행 등)	3	2	5 이상	3	5 이상	2	2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 및 복원, 관리	0	1	2	1	5 이상	3	1
	일반 건축물 정비(신축, 증축, 개축, 철거 등)	2	2	4	3	5 이상	4	2
	조경시설물 정비(신설, 이전, 제거 등)	4	2	5 이상	3	5 이상	3	2
	방재시설 정비(CCTV, 소화전 등)	0	1	1	2	1	0	0
	지하시설물 정비(정화조, 배수로 등)	0	3	1	0	0	0	0
경관 (3)	경관탐방로	5 이상	3	5 이상	3	5 이상	2	2
	전망대, 전망데크, 포토존	3	2	5 이상	2	1	3	2
	조망확보 및 차폐	2	3	0	1	2	0	2
이용자 (2)	관광휴양활용(전망휴양, 문화향유 등)	0	3	2	2	4	3	1
	교육활용(체험 학습 등)	1	2	3	2	2	3	1



### 3. 조사 및 계획 항목에 대한 실무자의 필요성 인식조사

#### 1) 실무자의 업무 수행 상황

전국 60개 지자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배포된 설문지는 45개 지자체에서 48명의 응답자로부터 회수되었다. 명승을 관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최소 크기가 60개가 되며, 이 중에서 표본이 되는 45개 (75%) 이상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므로 실무자의 전반적인 인식 파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에 대한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가 종합정보계획 보고서의 조사 분야에서 0.968, 계획 분야에서 0.970으로 계산되었다.<sup>4</sup>

설문에 응답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명승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산악형, 계곡형, 하천호수형, 도서해안형, 정원원

림형, 옛길형을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30개였다. 2개 이상의 유형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9개, 3개 이상의 유형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5개에 해당했다. 2개 이상의 유형을 관리하는 경우 산악형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명승을 단독이나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가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보아 특정한 유형의 명승에 대한 계획 경험이나 관리 업무에 편중되지 않는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직급 구성은 48명 중에 6급 이상이 16.7%, 7급 이상이 22.9%, 8급 이상이 14.6%였으며, 학예연구사가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그림 4). 응답자의 공무 수행기간은 평균 11.9년이었으며 5년 이하가 39.6%로 가장 많았다. 또한 문화재업무 담당기간은 평균 4.5년으로 6년 이상 경력자가 전체 20.8%를 차지하며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재 업무에 익숙한 담당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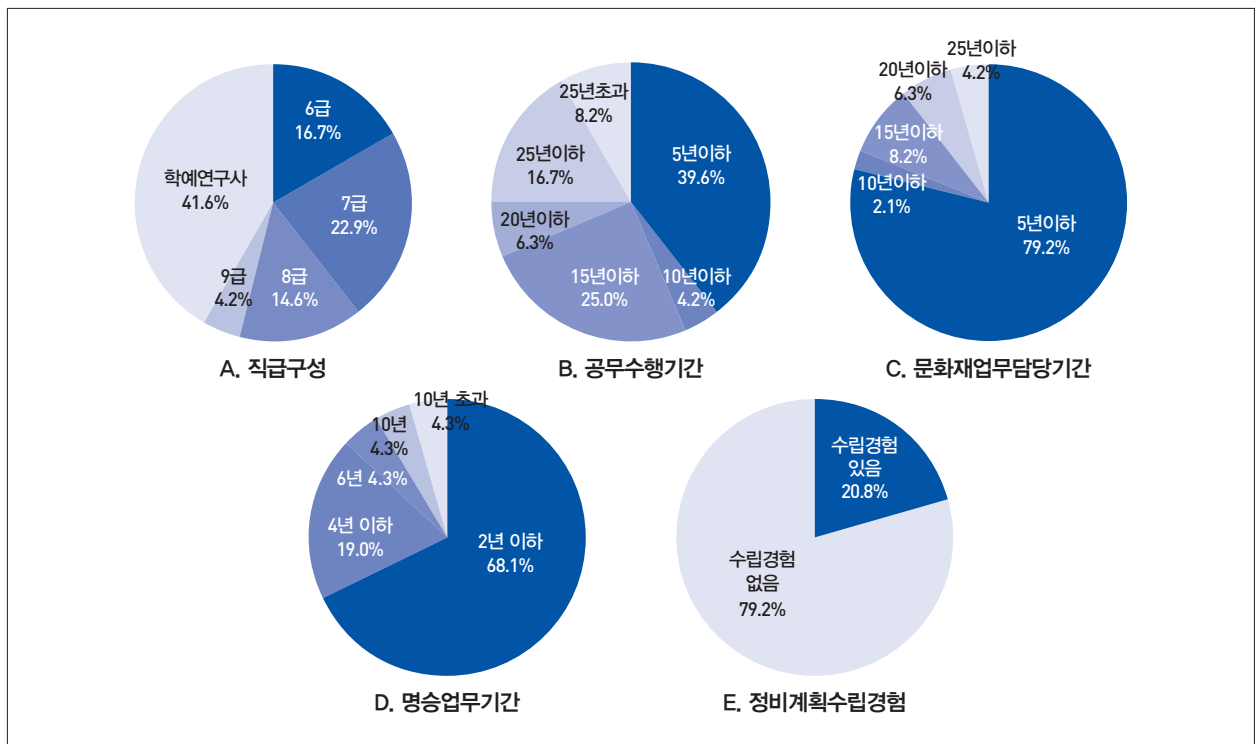


그림 4. 지자체 명승 실무자의 업무수행 상황

4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6 이상일 때 신뢰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본 설문에서 수집된 응답결과는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한편, 명승업무의 담당기간은 평균 2.3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년 이하가 6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2.9%로 높지 않았다. 명승 종합정비계획의 수립경험이 있는 그룹이 20.8%(10명)인 반면에 수립경험이 없는 그룹은 38명으로 다소 높았다. 이 외에도 명승 관리나 정비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으로 12명(34.3%)이 계획수립지침의 부재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계획 대상의 범위가 넓은 점(25.7%), 경험의 부족(22.9%)등이 응답으로 나타났다.

명승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명(75%)로 압도적이었으며 수립지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한 자유 서술형으로 설문한 16명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9명(56.3%)로 매우 높았다. 이 외에 ‘문화재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3명)’, ‘관리범위가 방대해서(2명)’, ‘문화재보호법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서(2명)’ 등의 의견도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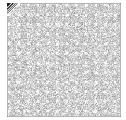
2) 조사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상황

‘일반환경’에서 주요 문화재 및 유적의 분포(4.04)<sup>5</sup>는 조사에서 요구도가 높아 명승과의 관계나 활용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는 필요도를 보였다(표 3). 반면에 기

표 3. 조사 분야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분야	항목	유효수	평균
일반환경	기상(기온, 강수량, 습도 등)	46	3.54
	주요 문화재 및 유적의 분포	48	4.04
	주요 관광자원	48	3.77
	축제 및 행사	48	3.30
역사환경	명승의 지정가치 및 위상	48	4.35
	관련 유적, 인물, 사건 등	47	4.28
	문화재 지정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48	4.25
	명승의 수리 및 보수 연혁	48	3.88
자연환경	지형, 지질, 표고, 경사, 향	47	3.94
	수계, 수량, 수질	46	3.83
	동물상	47	3.79
	임상 및 식생(식생현황 및 훼손도, 병충해 상황 등)	46	3.96
인문환경	주요 식생/수목의 현황, 구조, 관리현황	45	3.96
	상위계획, 관련법규, 제도	48	4.06
	토지이용, 지목, 소유자,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도	46	4.15
	교통 및 동선	45	3.80
	역사적 건축물의 주요연혁, 관리현황, 간싯촉	48	4.27
	일반 건축물(관리소, 매표소, 매점 등)	47	3.79
	조경시설물(휴게, 편의, 조명시설 등)	47	3.85
	방재시설(CCTV, 소화전, 소방기관, 비상연락망 등)	48	3.96
	지하시설물(정화조, 배수로 등)	48	3.85
	경관	주요 경관자원의 위치	46
주요 조망점(시점)의 위치	46	4.13	
조망형태 및 경관구조	45	4.22	
이용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48	4.15
	방문객 특성(방문시기, 이용추이 등)	48	3.92
	방문객의 인지도, 만족도 등 설문조사	48	3.75

5 모두 균일하게 응답했을 때 평균값이 3.0(보통)으로 산출되며, 5.0에 가까울수록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고 1.0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매우 불필요가 1.0이 되므로 1.0보다 평균값이 낮아질 수 없다.



상(3.54)과 축제 및 행사(3.30)는 요구도가 높지 않다. 주요 관광자원은 명승과의 연계를 위한 자원 발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관광자원에 주요 유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원 중심의 조사에 무게감이 있는 반면에, 다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명승과의 개연성이 낮은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조사 요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역사환경’을 구성하는 명승의 지정가치 및 위상(4.35), 명승과 관련된 유적이거나 인물 및 사건(4.28),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현상변경 허용기준(4.25)에 대한 조사는 중요도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이러한 반응은 명승의 지정기준에 상응하는 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러한 조사내용은 명승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행되고 지정 후에도 정밀조사나 DB구축 사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비용의 소모도가 낮은 항목이기도 하다. 한편, 문화재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에 해당하는 ‘명승의 수리보수연혁’에 대한 조사는 3.88로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이 특이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필요 의견이 나타나 ‘역사환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항목은 대체로 3.85 정도의 필요도를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한 필요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목간 차이가 미미한 가운데 식생현황 및 훼손도 정보가 포함된 임상도(3.96)와 주요 식생/수목의 생육환경(3.96)에 대한 조사의 요구도가 높았으며 반면에 동물상(3.79)에 대한 필요도가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명승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명승의 유형에 관계없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조사항목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연환경’의 세부 항목에서 필요성이 일관되게 나타난 것에 비해서 ‘인문환경’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부분적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항목 모두에서 필요 또는 매우 필요에 가까운 의견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주요 연혁, 훼손/관리현황, 간이실측도(4.27)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상위계획 및 제도(4.06), 토지이용현황, 소유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4.15)과 함께 방재시설(3.96)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경관적 가치를 명승 지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만큼 ‘경관’에 대한 세부 항목은 모두 4.13이상으로 나타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에서도 주요 경관자원의 위치(4.30)를 표시하거나 조망형태 및 경관구조(4.22)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으므로 향후 경관관리지도와 같은 자료의 작성에 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부수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유효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경관자원, 조망점(시점), 조망형태, 경관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는 현지인(지역주민, 이해관계자)과 방문객으로 구분하였을 때 현지인에 대한 의견수렴(4.15)과 방문객의 특성(3.92)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방문객의 인지도 또는 이용자 만족도 등과 같은 설문조사(3.75)에 대한 요구도는 높지 않았으나 기존의 보고서들은 관광계획 보고서의 조사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실무 담당자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명승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세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3) 계획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상황

계획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일반환경’의 정비계획으로 주요 문화재 및 유적과의 관계(4.15),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4.04)가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표 4). 그러나 축제 및 행사와의 연계는 3.57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는 조사 항목에서도 축제 및 행사가 중립적 성향에 가까운 3.30으로 나타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된 것과 유사한 성향을 보였다. 이는 종합 정비계획의 수립 시 명승을 문화재적 가치 반영된 자원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지역의 일시적 축제나 행사와 연계된 자원으로서는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역사환경’에 대해서는 자원과의 연계보다 지정가치 및 위상의 강화방안(4.26), 브랜드 및 콘텐츠 발굴(4.06),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정비(4.25) 모두 필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지정가치 및 위상강화와 문화재 지정구역의 정비계획은 사실상 문화재로서의 명승에 대한 가치를 부각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브랜드 및 콘텐츠 발굴(4.06)은 스토리텔링과 같은 자원 발굴과 함께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홍보 계획이 주된 내용으로 다른 2개 항목보다 필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연환경’에서는 5개 항목이 필요(4.00)에 근접하게 집중될 정도로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지형 정지 및 부지 조성, 수문/수경시설의 정비, 임상 관리, 식물생육환경 정비, 주요 식생 정비 등이 모두 필요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주요 식생에 대한 정비 계획과 함께 산림에 대한 숲아베기나 후계림 조성의 필요성

이 높게 나타난 점이다. 명승의 대부분이 산림 내에 위치하거나 산림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의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과 중복 지정되어 있는 명승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산림계획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명승과 관련된 자원이나 경관관리 차원에서 수립되는 것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즉, 지정범위가 넓고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명승에 대해서는 경관이나 장소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인문환경’에서 필요성이 높게 평가된 것은 조사 항목과 상응하여 명승 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수리·복원 관리계획(4.28)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에 포함되었으나 자체적으로 문화재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수반된 결과이다. 일반 건축물의 정비계획(4.04)과 지목, 소유 등 토지이용(4.02)의

표 4. 계획 분야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분야	항목	유효수	평균
일반환경	주요 문화재 및 유적과의 연계	47	4.15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	47	4.04
	축제 및 행사와의 연계	47	3.57
역사환경	지정가치 및 위상의 강화방안	47	4.26
	브랜드 및 콘텐츠 발굴	47	4.06
	문화재 지정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정비	48	4.25
자연환경	지형 정지 및 부지 조성	47	4.00
	수문시설 정비(연못, 호안, 배수로 등)	47	4.04
	임상관리(숲아베기, 후계림 조성 등)	46	3.91
	식물생육환경 정비(토양환경)	47	3.94
	주요 식생 정비(이식, 보식, 제거 등)	47	4.00
인문환경	토지이용(지목, 소유 등)	47	4.02
	교통 및 동선(진입로, 차량, 보행 등)	48	3.94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 및 복원, 관리	47	4.28
	일반 건축물 정비(신축, 증축, 개축, 철거 등)	46	4.04
	조경시설물 정비(신설, 이전, 제거 등)	46	4.00
	방재시설 정비(CCTV, 소화전 등)	46	3.98
	지하시설물 정비(정화조, 배수로 등)	46	3.87
경관	경관탐방로	47	4.28
	전망대, 전망데크, 포토존	47	3.94
	조망 확보 및 차폐	45	4.07
이용자	관광휴양활동(전망휴양, 문화휴양 등)	47	3.91
	교육활동(체험학습 등)	46	3.89



계획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 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다소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어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항목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경관’ 계획에서는 탐방로의 계획이 가장 필요한 것(4.28)으로 평가되었으며, 조망의 확보나 차폐도 전망대 및 전망데크의 계획에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경관탐방로, 전망대, 전망데크, 조망확보, 조망차폐 등은 경관 특성에 대한 조사 항목과 상응하여 계획의 필요성이 높은 항목이다. 한편, ‘이용자’ 관리계획은 주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휴양활용계획(3.91)과 교육활용계획(3.89)에서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 Ⅲ. 결론

본 연구는 명승의 체계적인 조사와 실현 가능한 종합정비계획의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조사와 계획의 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명승의 지정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립된 35건의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고서에 사용된 조사와 계획의 항목을 도출하고 전국 60개 지자체의 명승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60개 지자체로부터 회수된 45개 설문지에 대한 실무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종합정비계획의 6개 조사 분야에 대한 항목의 필요도에서도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역사환경’,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일반환경’과 ‘이용자’ 부문에서도 주요 문화재 및 유적의 분포(4.04),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4.15) 등 특정 항목에 대한 필요성도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획 분야에 대한 항목의 필요성에서도 대체적으로 필요(4.0)의 수준으로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역사환경’의 지정가치 및 위상강화(4.26),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정비계획(4.25), 그리고 ‘인문환경’의

명승 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수리·복원·관리(4.28), ‘경관’ 부문의 경관탐방로계획(4.28)에 대한 항목들은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와 계획의 모든 항목에서 리커트 척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일관성을 보이며 유사한 필요도로 나타났고 2개 이상의 명승 유형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다수였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필요도를 분석하는 작업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된 조사와 계획의 항목들은 새로 마련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과 함께 종합적 차원에서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재웅, 김승민, 2014, 「국내 보호지역의 현황 및 세계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2권 3호』, pp.191-200
- 김진영, 2016, 「명승의 전통적 개념 고찰을 통한 명승제도 개선방안 연구; 명승의 정의, 지정기준,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8
- 김창규, 2013,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3호』, pp.1211-1246
- 강영애, 노재현, 김현, 2016, 「명승 영월 청령포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보전기금 지불의사 결정요인」 『관광연구, 제31권 6호』, pp.151-170
- 노재현, 이현우, 2016, 「별서 명승 김천 방초정(芳草亭)과 최씨담(崔氏潭)의 입지 및 조영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4권 1호』, pp.71-82
- 단양군, 2016, 「단양지역 명승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 p.174
- 담양군, 2014, 「담양 명옥헌원림(명승58) 보존 및 정비 기본계획」, p.43
- 문화재청, 2014, 「국가지정 명승 유형별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 pp.23-28
- 문화재청, 2016, 「명승 보존관리 방안(지정구역 기준마련) 연구」, pp.63-71
- 문화재청, 2017, 「명승 유형별 보존관리방안 연구」, pp.92-105
- 박근엽, 2008, 「명승지정을 위한 경관평가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섬진강 하류권 사례대상지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4
- 박정애, 2013, 「朝鮮 後半期 關北名勝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78호』, pp.61-95
- 서귀포시, 2013, 「제주 서귀포 산방산 안전진단 및 종합정비계획」, p.60
- 신승진, 2004, 「명승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영월 동강 아라연 지역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 신준, 류제현, 2017, 「전통 명승에 부여된 인문적 가치의 내용과 실제 사례」 『문화역사지리, 제29권 1호』, pp.77-92
- 양주미, 2008, 「전통원지의 명승지정 요인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5
- 오해성, 이원호, 2013, 「명승 제35호 성락원에 대한 신규화식물의 분포특성」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제16권 4호』, pp.181-185
- 이영배, 류제현, 2013, 「진정성과 완결성에 기초한 명승 보호구역의 타당성 검토」 『문화재, 제46권 3호』, pp.32-47
- 이영이, 이진희, 김준, 이재근, 2012, 「도시 경관의 명승자원으로서의 가치연구; 명품마을(관매도, 영산도)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0권 4호』, pp.93-101
- 이원호, 김동현, 안혜인, 김재웅, 김대열, 조운연, 2014, 「Transition and Change factors of Scenic Site No.33 Gwanghalluwon Garden(명승 제33호 광한루원의 변천과정과 변화요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12권』, pp.13-20
- 이원호, 김재웅, 2013, 「명승 문화재의 경관자원 발굴을 위한 조망지점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9호』, pp.429-439
- 이원호, 김재웅, 신현실, 2012, 「보길도 윤선도 원림(명승 제34호) 일원의 수체계 고찰」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제2권』, pp.141-145
- 이원호, 이세미, 2013, 「성락원(명승 제35호) 주변지역 필지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성북동 문화재 주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1권 2호』, pp.82-91
- 이진희, 2006, 「명승 대상지 평가인자 적용에 관한 연구; 동해 무릉계곡, 함양 화림계곡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4
- 이종범, 2013, 「명승지역 내 주요수목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별서명승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 이창훈, 이원호, 2017, 「조선명승시선(朝鮮名勝詩選)에 나타난 명승자원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5권 1호』, pp.1-9
- 정산야, 2018, 「조선시대 명승 체험 방식의 유형화; 영서 지방을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7
- 조규희, 2012, 「조선후기 한양의 명승명소도와 국도(國都) 명승의 재인식」 『한국문화와 예술, 제10집』, pp.147-194



## 참고문헌

- 조영남, 2016, 「관동 지방 명승 향유 방식의 변화; 해안 명승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5
- 하태일, 2016, 「누적가시도를 이용한 명승 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8
- 하태일, 김충식, 2014, 「계곡 명승의 효과적인 경관보호를 위한 구역 설정기법 개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2권 3호』, pp.183-190
- 최지영, 이진향, 이재근, 2012, 「금선정의 명승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0권 1호』, pp.113-124

# Study on Deriving the Items related to Investigation and Planning for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of Scenic Sites

Lee, Jae-Yong

Departmen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headoz@nuch.ac.k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cavate the items of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scenic sites considering sustainability and analyze the needs of them. In this sense, based on 35 reports of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established between 2006, when scenic sites started to be designated, and 2017, the items used in 'investigation field' and 'planning field' were examined, and then a survey regarding the needs of the items was conduct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targeting officials at 60 local governments in the whole country. Of 60 local governments, opinions from 48 officials at 45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In order to verify the consistency of their opinions,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a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0.968 and 0.970 for 'investigation field' and 'planning field', respectively, showing high reliability.

As a result of the survey, most opinions generally expressed the needs of 6 items of 'investigation field' of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Especially, the needs to investigate 'historical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humanistic environment', and 'landscape' turned out to be high. In addition, as for 'general environment' and 'users', the needs of specific items such as 'distribution of main cultural properties and historic sites' (4.04) and 'acceptance of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and interested parties' (4.15) were found to be high. Besides, the items of 'planning field' also turned out to be needed in general (4.0). Particularly, the needs of 'enhancement of designated value and status' (4.26) and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designated areas of cultural properties an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4.25) in 'historical environment', 'maintenance of historic buildings at scenic sites' (4.28) in 'humanistic environment', and 'landscape trail planning' (4.28) in 'landscape' were found to be high.

In conclusion, the practical items related to investigation and planning of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scenic sit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cenic sites in the future.

---

**Keywords** Conservation, Management, Likert Scale, Monument, Landscape Architecture Cultural Property Maintenance

Received 2018. 06. 30 • Revised 2018. 08. 07 • Accepted 2018. 08. 14

